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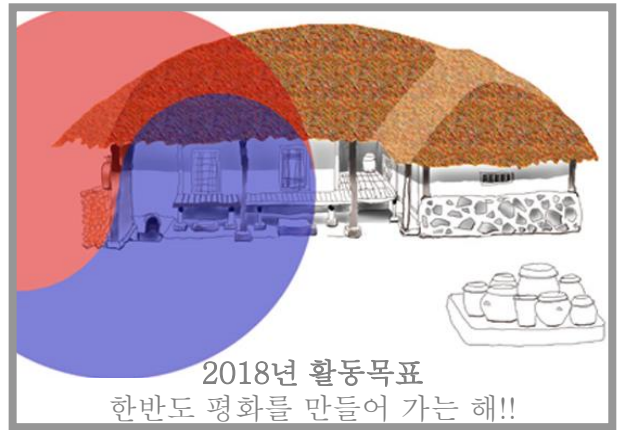
PEACE  
KOREA

# 협 회 소 식

2018년(2)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http://www.korinf.com)



# 2018년 사업 계획서

2018년 활동목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해!!

- 외교부 보고용 -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http://www.korinf.com)



2018년 사업계획

# 차 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외교부 제358호)

## 2018 특별기획사업

01. 한미동맹 세계평화대회
02.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03. 세계평화의 여왕 국제대회
04. 국제평화연대 창립대회
05. 평화한국미술대전

## 년중 계속사업

06. <통일로가는길> 발행 및 보급
07. 통일옥수수 심기 범국민운동
08. Peace Korea Campaign

## 매년 정기사업

09. 평화의 종 타종식(국민음악회)
10. 독도지킴이 국제연대운동
11.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12. DMZ 제야의 종 타종식

## 인도주의 지원사업

13.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

## 중장기 계속사업

14. 국제평화문화교류센터 건립사업



# 2018년 특별기획사업

## 6.25전쟁 정전65주년 기념 한미동맹 국제평화대회



### 1. 사업의 취지

2015년으로 민족분단 70주년을 맞으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새로운 계기를 맞았으며, 근래 한반도 긴장사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잠들어 있었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처럼 까다롭기 짝이 없는 경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전력 질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길게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지난 2013년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행사로 시작하여 매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에 정례행사로 진행하게 되는 한국평화의 종 타종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소통 평화축제 일환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국내외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연례적으로 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베를린국제평화대회에 연이어 한국전쟁 정전65주년을 기념행사 일환으로 2018워싱턴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함으로 70년이 다되도록 끝나지 않은 한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감과 동시에 한민족대화합과 동질성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2. 사업의 개요

- 행사명칭: 한미동맹 & 6.25 한국전쟁 정전65주년 기념, 미 대륙횡단  
한반도 통일기원 한미동맹 국제평화대회 자동차 대장정
- 행사주제: 통일, 그 길을 만든다.
- 행사기간: 2018. 07. 18~31(13박 16일)
- 주요장소: 미국 LA(개막식)~ 워싱턴 ~ 뉴욕(폐막식) / 미 중부대륙 횡단



- 프로그램: 미국 대륙횡단 자동차 대장정 / 미 대륙횡단 세계평화기도회  
참전용사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 한반도평화메달 수여식  
세계평화음악회(아메리카 아리랑) / 참전용사 자동차 증정식
-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미한국전참전용사회(KWVA) |  
주한미군전우회(KDVA)
-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미주한인총연합회 |  
REMEMBER727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  
MBC문화방송(예정)
- 대 행: SK플래닛(주)

### 3. 진행방법

한국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한국산 자동차를 이용하여 LA 한인타운에서 워싱턴을 거쳐 뉴욕 UN본부까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행사로, 출발지를 포함한 주요지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세계평화 K팝 콘서트'를 개최하고, 현지 생존 참전용사들께 DMZ국민보은 메달을 헌정하는 보은행사를 진행한 후, 뉴욕 UN본부 앞 함마슬트 광장에서 폐막행사를 겸한 세계평화 K팝 콘서트를 진행하며, 협찬받아 행사에 사용했던 자동차를 엄격한 기준 하에 선정한 참전 용사들께 유엔과 미국, 그리고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증정식을 진행한다.

### 4. 주요 프로그램(변동될 수 있음)

- 행사개최 예정지역  
LA(개막)-샌프란시스코-솔트레이크시티-덴버-링컨-시카고-인디애나폴리스-콜럼버스-워싱턴DC-아나폴리스-필라델피아-뉴욕(폐막식)
- 행사진행 프로그램 (변동될 수 있음)
  - 1부: 한반도평화통일기원 미, 대륙횡단 세계평화 기도회  
사 회: 해당지역 한인교회연합회 회장  
대표기도: 해당지역 한인교회 장로  
찬 양: 해당지역 한인교회 연합성가대  
설 교: 한국교회 대표자  
축 도: 해당지역 한인교회 원로지도자
  - 2부: 대한민국 국민 보은행사  
한국평화의 종 영상 타종식  
한국전 참전용사 대한민국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참전용사께 PEACE KOREA SORENTO 자동차 증정식(지역별 1명)  
대한민국 통일운동 공로자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지역별 VIP)  
현지 주지사 명예학위 수여식
  - 3부: 한반도 통일기원 미, 대륙횡단 평화 음악회(아메리카 아리랑)

5. 행사진행 예정코스(변동될 수 있음)

#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 대륙횡단 한미동맹 국제평화대회 자동차 대장정





## 오바마 “6·25는 한국의 승리... 한·미동맹 굳건하다”



**“잊혀진 전쟁 아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6·25전쟁 정전 기념식에 참석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전쟁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역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진정한 유업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6·25전쟁은 한국의 승리였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곽경근 선임기자



**감사·보은의 메달** 휴전선 폐철조각으로 제작한 보은메달을 목에 건 6·25전쟁 참전용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감격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다. 작은 사진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참전용사들에게 보은메달을 걸어주며 축하와 감사의 말을 건네고 있는 모습. 워싱턴=곽경근 선임기자



워싱턴 ‘정전 60돌’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론 첫 참석  
양국 동맹 과시... 참석한 참전용사 전원에 보은메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대해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5000만명의 한국인들은 지금 자유, 활발한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로 억압, 빈곤으로 점철된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유업(legacy)”이라며 “역사는 어떻게 수

십년의 냉전기간 동안 자유국가들이 하나로 뭉쳤는지,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평가되는 데 대해 “여기 미국에서는 어떤 전쟁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헌신은 결코 약화되

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친 미국의 동맹은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세력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미 대통령이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축사에서 “한국전쟁은 동맹과 국제기구가 우리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국

민일보 조민제 회장과 6·25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 이강두 대표회장,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서대천 목사 등은 할스 랭글 미 연방하원의원 등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 20여명에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보은메달을 걸어주었다. 조 회장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보은메달을 뜻 깊은 장소에서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한국전 정전 60주년 공식 기념 메달로 지정한 보은메달

은 국민일보와 6·25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 우리민족교류협회 등이 주관하고 포스코가 직접 제작한 메달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미 국방부 산하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는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 전원에 보은메달을 증정했으며, 이후 1만여개의 보은메달을 추가로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3·4·5·21·25면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남도영 기자  
bwbae@kmb.co.kr



2014.07.27



HINGE DIRECTOR CHAIRMAN SONG SONG THOMAS LEE, AND JAY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표단이 참전용사 대표와 해군 의전관의 안내를 받으며, 메달수여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해군 의전관 뒤쪽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그 우측 박선규 전 문화부차관, 그 우측 협회 이강두 회장, 그 우측 협회 미주 총재 토마스 K. 리, 그 중간 협회 송기학 이사장, 맨 뒤 협회 서대천 지도 목사)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표단이,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단이 헌화의식을 끝낸 후 동일한 장소에서 메달 전달식을 하고 있다. (청동상 우측에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정부 대표단이 헌화의식을 끝내고 참전용사 대표단의 헌화의식과 보은메달 수여의식을 지켜보는 관계로 사진기자 출입이 제한되어 행사장 전광판을 촬영한 것임)



# 훈장보다 값진 메달... DMZ 녹슨 철조망이 美 감동시켰다

## 보은메달 증정식 이모저모

### 본보 조민제 회장 등 현지서 직접 전달해 참전용사 "뜻밖의 뜻깊은 선물... 자랑스럽다" 정전 60주년 의미 배가시킨 최고 히트상품

보은메달 증정식은 미국 참전용사 대표 20여명이 27일 오전 9시(현지시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 헌화하면서 시작했다. 찰스 랭글 미 연방하원의원을 포함해 공군과 해군, 해병대 등을 대표한 참전용사들은 차례로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6·25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 이강두 대표 회장, 박선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 서대천 목사, 우리민족교류협회 이경화 미주총재 등 우리 측 대표단 6명이 참전용사 대표단에게 보은메달을 직접 증정했다. 참전용사 대표단은 우리 측 인사들로부터 '이 보은메달은 휴전선 폐철조망을 녹여 제작했다'는 설명을 듣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국전 당시 미 제2사단 제

503야전포병대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랭글 하원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싸웠다"며 "한국전은 잊혀진 전쟁이 결코 아니며, 이런 자리에 함께한 바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 육군 공수특전대 출신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스티븐 켈러(83)씨는 "뜻 깊은 메달을 받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고, 해병대 출신 조지 사우델(84)씨 역시 "장진호전투와 대구 등에서 싸웠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이 행사장에 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보은메달을 자랑스러워했다.

참전용사 대표단에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회 이태하 회장과 윤상선 부회장이 포함됐다. 윤 부회장은 "보은메달로 정전 60주년 행사가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며 한국의 '선물'에 감사를 표했다. 증정식이 진행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28년 전인 1995년 7월 27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제작됐으며, 19명의 군인들이 V자형으로 늘어선 전진하는 모습이 형상화돼 있다.

보은메달은 이날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의 최고 '히트상품'이었다. 대부분 여인이 남은 백발의 참전용사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전달받은 보은메달을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참전용사 남편의 목에 보은메달을 걸어주며 즐거워하는 노부인, 할아버지의 보은메달을 바라보는 손자들의 모습, 휠체어에 앉은 참전용사의 목에 보은메달을 걸어주는 현역 군인들의 즐거운 모습도 행사장 곳곳에서 목격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면서 보은메달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미국 사람들에게 메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름 7cm 크기의 훈장 형태 보은메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와 '감사'와 존경(Thanks and Honor)'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메달의 원형 부분은 비무장지대(DMZ) 폐철조망을 녹여 제작된 것이다. 메달 앞면에는 태극문양과 유엔 및 참전국 국기가 새겨져 있다.



**자랑스런 참전용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미국인 참전용사들이 보은메달을 가슴에 단 채 바라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기념식에는 70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워싱턴=곽경선 선임기자

## 보은메달, 작은 정성 큰 반향



### 휴전선 폐철조망으로 제작 감사 표시 소박한 의도 시작 참전국 "우리도 달라" 쇠도 샤프 "뜻깊은 곳 아이디어"

녹슨 휴전선 폐철조망을 녹여 만든 작은 메달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보은메달'(사진)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정전 60주년 공식 기념 메달인 보은메달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작은 메달을 만들자'는 소박한 의도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남북이 대치한 한국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휴전선 폐철책선을 녹여 메달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추가됐다. 보은메달이 처음

선보인 곳은 지난 5월 9일 워싱턴DC에서 국민일보, 우리민족교류협회, 6·25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강두)가 주관해 개최한 보은메달 증정 행사 '세계평화 페스티벌 아리랑'에서였다.

보은메달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월터 사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당시 "보은메달 증정은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이벤트"라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서 메달 증정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사프 전 사령관은 미 국방부 산하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 명예위원장이다. 지난달 미국 기념사업회 측 티머시 워싱턴 대령이 한국으로 와 보은메달 제작을 주관한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과 공식 기념메달 지정을 논의했다. 당시 워싱턴 대령은 "(보은메달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다"고 감탄했다고 송 이사장은 전했다.

미국의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은 끝났지만 보은메달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벨기에 뉴질랜드 등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일부 국가들은 주한 대사관 등을 통해 보은메달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해외 동포 단체들로부터도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은메달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남도영 기자







축사하는 오바마 백악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라고 역설했다.

# 워싱턴 하늘에 메아리 친 “생큐, 베테랑!”

(Thank You, Vete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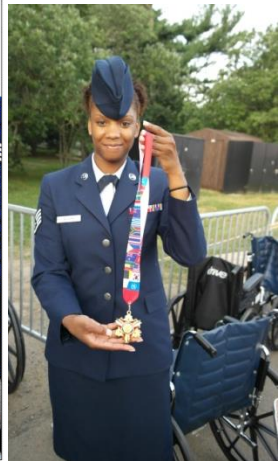
영광의 주역을 보은메달을 가슴에 달고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 이들에게 기념식은 축제였다.



▶ 혼훈한 신-후배 기념식장 주변에서 한 여군이 휠체어를 탄 참전용사를 안내하고 있다.



▼ 흥 울음 우리 가락 한국 전통공연과 한국전 영상물 상영이 기념식의 분위기를 돋웠다. 미국 해병대의 군악연주도 곁들여졌다.



▲ 한-미 손모아 “코리아 파이팅”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뒤편에서 미국인 참전용사들이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재미교포들과 어울려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참전용사 가족들도 환한 미소 참전용사 가족들도 기념식에 참석해 백악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워싱턴 객경근 선임기자





# 워싱턴 아리랑 WASHINGTON ARIRANG



미국 워싱턴DC 워너 극장에서 8월 오후 (현지시간) 열린 '세계평화페스티벌 아리랑' 행사에서 이강두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표회장, 김성호 정전 60주년기념사업회 고문,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 등이 6·25 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보은패달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 감사 인사에 '몽클', 비 공연에 '환호'



월드스타의 '군복 공연' 월드스타 비가 군복 차림으로 공연하고 있다. 2000여명의 참석자들이 열렬히 환호했다.



자리 빛낸 참전 노병들 '세계평화페스티벌 아리랑' 행사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 노병들.



가야금 매력에 흠뻑 미모의 자매로 구성된 '가야랑'이 민요 매튜리와 퓨전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다.



▲상추 'MC 명 받았습디다.' 페스티벌 행사 2부 공연의 진행을 맡은 가수 상추 일병(본명 이상철)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성호 전 장관 '깜짝 패션쇼' 범우부 장관을 지낸 김성호 정전 60주년기념사업회 고문이 깜박 패션쇼에 깜박 등장했다.




반기문 총장 조카도 감사공연 동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바이올리니스트 반선경씨(왼쪽)와 기타리스트 매정흠씨가 합연하고 있다.





행사 후 본 협회에서는 대회장인 월터 L. 샤프 장군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측부터 송기학 본 협회 이사장, 샤프 장군 부인, 월터 L. 샤프 장군,  
 이강두 본 협회 회장, 서대천 본 협회 지도 목사)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July 28, 2013

ALLYSON Y. SCHWARTZ  
 13TH DISTRICT OF PENNSYLVANIA

Mr. Kang Doo Lee  
 Antioch Church of Philadelphia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Dear President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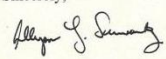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appreciation that I accept this Plaque of Appreciation from President Lee and the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Sixty years ago, a historic armistice was signed bringing the Korean War to an official end. As the daughter of a Korean War veteran, I personally understand the sacrifices made by these brave men and their families. As a 5 year old in kindergarten, I can still vividly recall my dad returning home from his military service to pick me up at school, and not recognizing him.

I attribute my strong commitment to public serve to my father and I am proud that the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shares this commitment by fostering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cultures in the community.

Once again, I am truly honored by this prestigious recognition and thank all in attendance on this momentous occasion.

Sincerely,

  
 Allyson Y. Schwartz  
 Member of Congress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와 인근 몽고메리카운티가 지역구인 앨리슨 Y. 슈워츠(65. 민주) 하원의원이 본 협회에 감사장을 보내왔다. 슈워츠 의원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최근 그녀를 워싱턴에 '떠오르는 별' 이라고 묘사한 5선 의원의 경제통이다. 내년 실시되는 펜실페니아 주지사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는 중에 특별서한을 보내 왔다.

# 중앙일보

## 미국내 최대 지한파 조직 '주한미군전우회' 공식 출범



2017. 5.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KDVA)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주미한국대사관]

전·현직 주한미군을 회원으로 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저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이후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예비역 장병과 현역 근무자 등 350만 명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향후 회원 모집 성과에 따라선 미국내 한·미 동맹을 증진하는 최대 규모의 지한파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참전용사·현역 등 350만 명 대상 회장엔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전우회는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초대 회장으로 나섰다.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 버나드 샴포 전 미8군사령관이 부회장이다.

이사진에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제임스 셔먼, 존 킬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존슨 전 미8군사령관, 김종욱 카투스사연합회장 등이 임명됐다.

샤프 회장은 발족식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은 한국의 민주주의, 자유,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됐고 이후 북한의 도발 속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주한미군전우회는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한·미 관계 세미나 개최, 양국 우호 증진 활동 등으로 동맹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주미한국대사는 “이 자리를 통해 350만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꿈이 이뤄졌다”고 축하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주한미군전우회 발족으로 비군사적 차원에서 미래 한·미 동맹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전우회는 미국 전역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한미군 출신 전역자들의 모임을 접촉해 회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종욱 카투사연합회장은 “회원 확장이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출신자들이 미국에 돌아와 소속 부대별로 만들어 놓은 단체들이 1차적으로 접촉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 [천자칼럼]

### 350만 주한미군전우회

미군이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날은 1945년 9월8일. 광복 직후 38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인천항에 도착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대동강에서 격침된 ‘적대적 인연’ 이후 79년 만이었다. 7만여명의 초기 미군은 3년간 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철수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철수 연기’ 요청도 소용없었다. 철수가 완료된 지 1년도 안 돼 6·25가 터지자 미군은 급거 귀환했다. 이때 참전한 미군만 48만여명이다. 이 중 3만6000여명이 전사하고 11만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참전 용사 중에는 얼 샤프 중위도 있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전장으로 달려온 그는 1년 반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피의 능선’으로 불리던 양구 편치볼지구에서도 혈전을 벌였다. 살아생전 그곳을 방문하는 게 소원이었던 그는 아들이 한국 근무 중(1996~1998) 준장으로 승진하자 방한해 ‘젯더미 위의 기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가 젊은 날 두고 왔던 핏덩이 아들이 2008~2011년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대장이다.

미군은 한국 외에도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독일 영국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만 9만여명이 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주둔비용을 분담한다. 우리도 미군 비용의 절반을 방위부담금으로 낸다. 군사위성 등 첨단 감시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담금보다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군사동맹에 따른 안전보장 효과는 더 크다. 주일미군이 해병대·해군 중심인 것과 달리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이다. 휴전 중이라는 특수상황과 지정학적 요건이 겹친 결과다. 병력은 2만8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전쟁억지력은 수십배나 된다.

주한미군은 군사 영역 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에 납품한다는 광고 문구의 힘은 대단했다. 샘표간장이나 남양유업 등의 ‘미 군납 광고’는 최고의 홍보 포인트였다. 대중문화에서는 신중현, 현미, 패티김 등이 미군 캠프 위문공연으로 스타가 됐다. 이 태원을 중심으로 한 클럽 문화도 미군을 통해 확산됐다.

정전협정 이후의 주한미군만 35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매머드급 친한(親韓)조직인 주한미군전우회를 그저께 창립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어서 더 의미 있다. 대를 이은 양국 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에 화답하고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G빅스원 등 우리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다니 이 또한 훈훈한 소식이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2017. 6. 27일 미국 워싱턴DC 의회 청사에서 진행된 <2018워싱턴국제평화대회> 준비를 위한 한미지도자 대회 후, 미국측 대표로 행사에 참가한 미국의회 지도자들께, 우리민족교류협회가 DMZ녹슨 철조망과 6.25당시에 사용되었던 탄피를 녹여 제작한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사진앞줄 우측부터 우리민족교류협회 명예회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우리민족교류협회 공동회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엘리엇 앵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우리민족교류협회 뉴욕지회장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우리민족교류협회 상임고문 이선구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사장)





## 특별기획사업

#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 1. 사업의 취지

**평화의 종**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아널드 슈와츠만’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6M 높이의 UN문자를 형상화 한 구조물의 종탑이다. 84LA올림픽 디자인 감독과 88서울 올림픽 디자인 자문역을 역임한 아널드 슈워츠만은, 지난 2013년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용산 전쟁기념관에 건립된 한국평화의 종과 금번 JSA(판문점)와 애기봉 정상에 건립할 예정인 세계평화의 종과 남북평화의 종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디자인하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에 평화의 종 동시타종식을 진행해 달라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를 통해 디자인을 재능기부 함으로 지난 2013년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전쟁기념관에 첫 번째 한국평화의 종이 건립 되었고, 금번에 두 번째로 광복과 분단70주년 조형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JSA에 세계평화의 종이, 그리고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김포 애기봉 전망대 정상에 남북평화의 종이 세 번째로 건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범국민적인 통일운동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운동 차원에서, 총 26개의 평화의 종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오는 2023년 한국전 정전70주년까지 이미 한국에 세워진 3개의 평화의 종을 포함하여 참전 21개국 수도와 유엔본부 앞 등 총 25개의 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마지막 26번째 종은 통일이 되는 그 날, 평양에 건립할 예정이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주제: 아, DMZ 녹슨 철조망!  
평화의 종이 되어 울리다.

일시: 2017년 2월 ~ 2019년 9월

장소: 애기봉 전망대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부, 국방부,  
국민대통합위원회, 경기도, 김포시,  
대한민국건국회,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미주한인총연합회,  
재독한인총연합회





애기봉 전망대 평화생태공원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평화공원비



협찬기업 로고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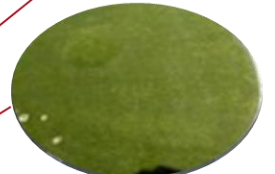
참여자 기념명판



6.25전쟁 기록화 조각판



북한 개성시 조강리



다목적 남북평화마당



애기봉 전망대



평화등일 기원 리본 줄이 펜스



남북평화의 종: 반세기여 년 동안 애기봉 정상에서 북녘 땅에 평화의 밝은 빛을 비춰 오다 지난 2014년 시설을 노후화로 철거되었던 성탄트리 십자가 점등 탑과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 그리고 민족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 등을 녹여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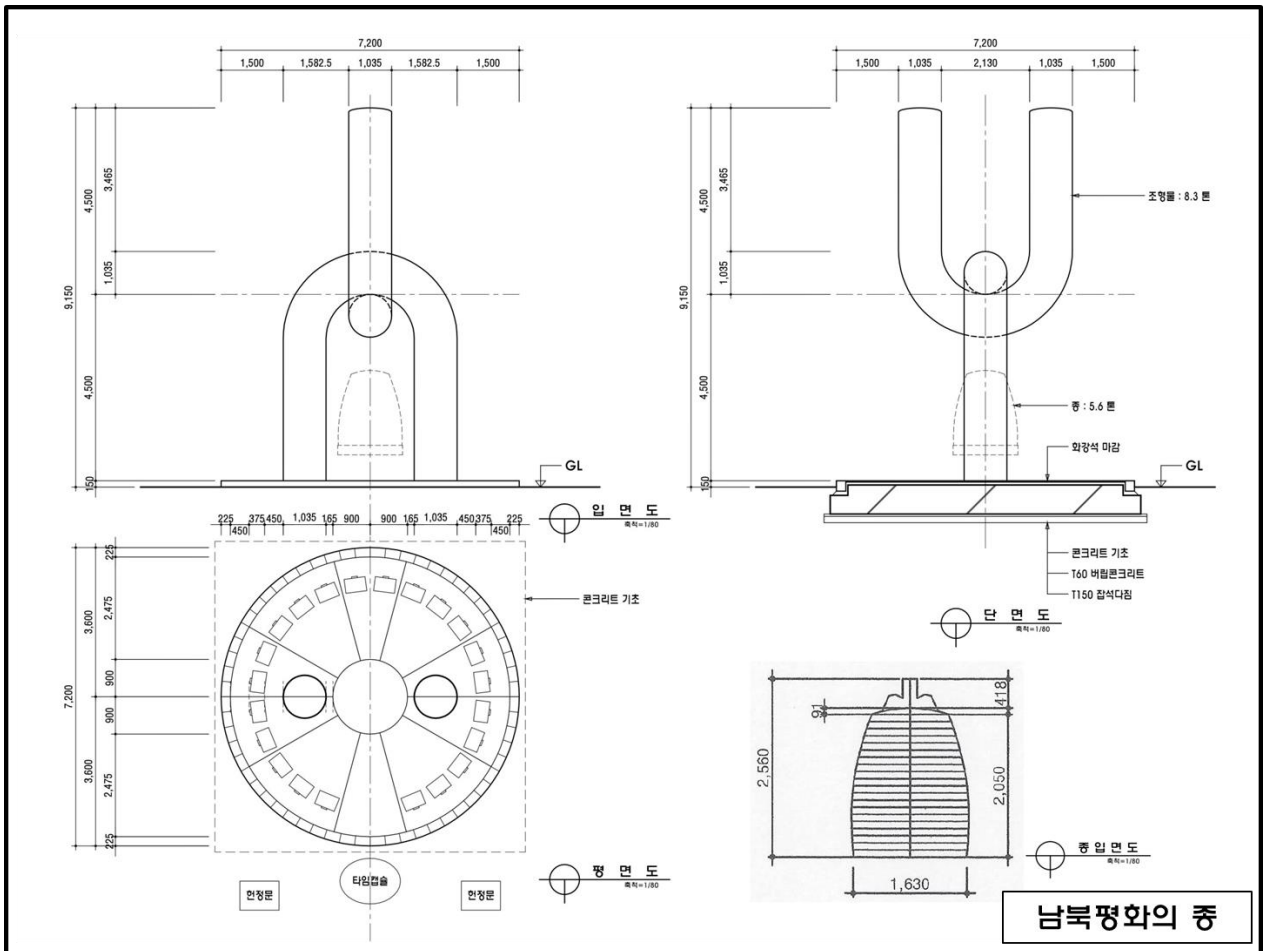


# 애기봉 전망대 남북평화의 종 건립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북한 땅이 눈앞에 보이는 애기봉에 남북 간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로서 22m 높이의 성탄트리 점등식이 행해졌다. 북한은 매년 성탄트리 점등이 북한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조준사격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해 오던 중, 지난 2014년 10월 15~16일 양일간에 애기봉을 관할하는 부대장이 철탑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를 철거하여 대통령이 진노하였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과 기독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김포시당국에서는 북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애기봉 일대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국가안보체험공간으로서의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 된 철탑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공원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진행중인 평화의 종탑을 건립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 오며 따라, 지난 2015년 2월 11일 협회 관계자들이 김포시의 안내를 받아 애기봉을 방문하여 철탑 철거현장을 둘러보고 평화의 종 건립에 적정한 위치와 부지 등을 협의하였다.

따라서 본 협회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당시에 사용되어진 낡은 탄피,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이곳 애기봉 전망대에 세워져 있었던 성탄트리 철탑 등을 녹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내외 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김포시와 더불어 이곳 애기봉 정상에 세 번째 평화의 종으로 <남북평화의 종> 건립을 추진하고, 매년 이곳에서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범국민 통일기원 제야(除夜)의 타종식과 해맞이 타종식, 그리고 통일가요제 등 다양한 평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북평화의 종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기간 | 2016. 11 ~ 2018. 12      면적 | 49,500 m<sup>2</sup>

발주 | 김포시      설계 | 履露齋 IROJE architects & planners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평화공원로 139 (49,500m<sup>2</sup>) 애기봉 일대, 접경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김포시가 395 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들여, 전망타워를 비롯해 평화광장, 생태전시관 등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2016년에 후반기 착공,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순수민간차원의 범국민적인 통일운동 일환으로 전망대 정상에 <북북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상징적인 조영물로 승화 발전시켜 갈 예정이다.

1. 전망대    2. 기념마당    3. 전망대 오름길    4. 평화의종
5. 주차장    6. 전시관    7. 평화광장    8. 해병대전적비(기존)

## 애기봉의 지리적 위치





##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남북평화의 종' 건립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6.04.06. 16:13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6·25전쟁의 상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과 6.25참전용사의 심장에 박힌 탄피가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하 애기봉)에서 '남북평화의 종'으로 재탄생한다고 6일 밝혔다.

'평화의 종'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정부 공식행사인 한국전 정전60주년 기념식에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과 참전용사의 심장에 박힌 탄피를 녹여 제작한 국민보은메달을 받고 감격해 하는 참전용사의 모습을 보고 1957년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겸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인 아놀드 슈와츠만 경이 '평화의 종'을 구상하게 됐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관계자들이 4월 5일 김포시를 방문하여 유영록 시장과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금번 공동사업을 계기로 향후 쌍방이 적극 협력하여 범국민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을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 공동추진위원장에 추대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에 첫 번째로 건립된 한국평화의 종 미니어처 추대패와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사진 좌로부터, 채낙중 김포시 관광팀장, 홍영선 우리민족교류협회 상임이사,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영진 우리민족교류협회장, 박동균 김포시 부시장, 이성구 김포시 복지문화국장, 심상연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평화의 종'은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아놀드 슈와츠만 경으로부터 디자인을 재능기부 받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난 2013년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전쟁기념관에 첫번째 한국평화의 종을 건립하였고, 2015년 민족분단 70주년 특별기획사업 일환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JSA(판문점)에 두번째 세계평화의 종을 착공하였으며, 추진중인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은 세번째 평화의 종이다. 본 협회는 계속하여 오는 2023년 한국전 정전70주년 때까지 참전 21개국과 유엔본부 (미국뉴욕) 등지에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마지막 평화의 종은 통일 후 평양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평화문화도시인 김포 애기봉에 건립되는 남북평화의 종은, 종소리가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9m 높이의 청동구조물로 제작되며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을 비롯한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체인 형태의 UN 문자를 형상화하고 하단부에 평화의 종이 설치된다.

이 종은 국방부의 협력을 받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과 6.25 전투현장에서 수집된 남은 탄피,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순 그동안 수 십년이 넘도록 매년 성탄의 불빛을 북녘 땅에까지 밝혀오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격 철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던 점등 탑 등을 녹여 제작한 전통적인 범종(한국종)이며, 종탑 기단 부분에는 타원형으로 참전국명과 국기를 조각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을 예정이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은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을 위해 지난 5일 김포를 방문해 한국평화의 종 미니어처 추대패와 녹슨 철책과 탄피로 만든 한반도평화메달을 유영록 김포시장에게 전달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인 김포에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평화의 종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관문으로서 김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에스-오일이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름을 보호에  
앞장섭니다

# 국민일보

이탈리안 모던 클래식  
**'반hardt 알바자'**  
2013 국가품질경영대회  
[명품 창출 부문 대통령상 수상]

국민일보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기획

33

## 애기봉 전망대에 '남북평화의 종' 세운다

사업의 의미와 성공 방안 모색 위한 좌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남북평화의 종'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 전망대에 들어선다. 종은 2014년 철거된 애기봉 철탁의 쇠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 6·25전쟁 전사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납은 탄피로 제작된다. 71년 세월전 뒤 연발마다 성탄트리로 변신, 개성 시내까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상징이었던 애기봉 철탁이 철거된 뒤 비어있던 곳을 평화의 종소리로 채우는 것이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주관하는 '6·25 한국전쟁 참전 21개국 세계평화의 종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직위 상임추진위원장 소강석 새연교회 목사, 조직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집행위원장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민교협) 이사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시세연교회 당회실에서 좌담을 가졌다.

# “평화통일 염원 종소리 북녘 땅과 세계로 울려 퍼지게 할 것”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과 탄피 등을 녹여 평화의 종을 세우는 사업에 국내외 관심이 높다. 시작한 동기가 궁금하다.

▲송기학 이사장=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민교협이 국민일보와 함께 참전국을 찾아가는 보은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의 협조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참전용사들이 즐긴 피담의 결정체인 DMZ 철조망과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DMZ국민보은메달'을 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진행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공식 기념행사에서도 이 메달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감동의 울음바다를 이루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중계됐다.

이때 경기도 파주시 실마리에 있는 영국군 전차비를 디자인했던 영국인 디자이너 니 아놀드 슈왈츠만 경이 생애 마지막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한반도에 두고 싶다고 전해왔다. 그해 12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한국평화의 종'을 세웠다. 처음에는 슈왈츠만 경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에 세우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국방부는 물론 유엔사령부, 정전협상국 당사자들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거친 뒤 비로소 지난해 JSA에서 '세계평화의 종' 착공식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평화의 종은 김포 애기봉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소강석 목사=북녘 땅에도 성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애기봉에 세운 십자가 점등탑이 2014년 10월 안전문제로 전격 철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철거된 철탁에 담겨 있던 한국교회와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남북평화의 종'을 건립하란. 그 종소리가 북녘 땅 깊숙이 개성까지 들린다고 한다. 평화의 종 건립이후엔 타종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켜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일구어 가는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평화의 종 디자인이 특별하다. UN의 의미를 본딴다고 하는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영진 전 장관=독일 통일 현저에 가보니 분단 당시 세워졌던 시설물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과 탄피를 이용해 만든 조형물을 세울려고 한 거야. 70년 넘는 분단 역사 속에서 서로 이질화돼버린 남북한과 국내의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화해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이다. 그만큼 오늘도 한반도 상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로 이때 기독교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강석 새연교회 목사(왼쪽부터)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세연교회 당회실에서 좌담회를 가진 뒤 '남북 평화의 종' 모형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애기봉 철탁 쇠-DMZ 철조망-6·25 전사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녹여 제작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종 모양, 'UN' 문자 체인 모양 형상화 DMZ평화기도회·평화의 종 타종행사 연중 진행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소강석 새연교회 목사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우리 스스로 '일구어 가는 통일' 준비 한국 교계 평화통일운동 상징될 것 평화의 종 유엔본부 등에도 건립 계획

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UN 문자를 체인 형식으로 형상화했다.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도지사=현재 추진 중인 두 번째, 세 번째 평화의 종은 모두 우리 경기도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70년 넘는 분단 역사 속에서 서로 이질화돼버린 남북한과 국내의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화해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이다. 그만큼 오늘도 한반도 상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로 이때 기독교

계가 중심이 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다.

-아무래도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김영진 전 장관=평화운동은 기원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세대로 이어져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단 호국의 달인 6월에 맞춰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을 가지려 한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일까지 참전 21개국과 유엔본부 등지에 평화의 종을 건립코자 한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로 국내외의 공중파 방송들과 함께 동시 타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화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JSA와 애기봉 정상에 평화의 종을 건립돼 역사적인 타종식이 진행된다면 본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한층 높아져 새로운 출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한국교회와 함께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표방한 김포시와 적극 협력하려 한다. 그래서 애기봉에 건립되는 '남북평화의 종' 근처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 통일수련원을 조성하고, DMZ를 체험해 보지 못한 지방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중 'DMZ평화기도회 겸 남북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한국교회의 통일기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강석 목사=민족의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일을 어떤 해택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뜻 깊은 일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숭고한 헌신은 후손이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미 건립된 용산 전쟁기념관의 한국평화의 종과 동일하게 평화의 종탑 대리석 기단, 가정자리 등에 참여자들의 명판을 조각해 영구적인 기록물로 남기고자 한다. 종탑 전면부 중앙에 매달리는 타임캡슐에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기록 및 관련 영상, 사진 등을 수장해 통일이 되는 날 후손들이 개봉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 본부와 참전21개국 등지에 건립될 예정인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비롯한 정례적인 타종 행사에 함께하고 조직위 특별실명위원회로서도 위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바 있다면 말씀해 달라.

▲남 도지사=독일 통일의 시작은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시작한 일요평화기도회였다. 그들은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나 둘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됐다. 한국교회도 수년 전부터 통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열망이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의 발판이 되고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선 국민들과 국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현상인 JSA와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애기봉에서 한국교회와 중심이 돼 행해지는 범국민적 평화의 종 타종행사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국교회와 오랜 기간 기도회로 심어 온 평화통일의 새싹이 울트게 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오늘날 세계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분단 상징이자 현상인 JSA와 DMZ가 순수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을 통해 세계평화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정리=김나래 기자 narae@kmb.co.kr





2013년,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조형물로 DMZ 철조망과 탄피를 녹여 용산전쟁 기념관에 건립한 한국평화의 종 기념비의 기단 모습과 기념비 건립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 및 단체, 종교기관, 개인 등의 명판 모습 (JSA와 애기봉에 건립 될 예정인 평화의 종 기념비 기단도 동일한 형태로 조성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세계각지에 건립될 예정인 평화의 종의 모든 기단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8. 28. AM07:30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회의실 주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협찬: (사)한생명살리기운



지난 2015년 8월 28일, 국회의사당 귀빈 홀에서 진행된 “평화의 종 건립사업 각계 지도자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평화의 종 건립을 위한 범국민 참여운동의 마중 물이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평화의 종 건립기금 금일봉을 김영진 조직위원장께 전달했다.





## 대기봉 평화생태공원 착공 "개성까지 들릴 '남북 평화의 종' 만들 것"...

경기도 김포시(시장 유영록)와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는 21일 오후 김포 월곶면 조강리에 위치한 대기봉 전망대에서 '대기봉 평화생태공원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록 김포시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승도 해병대 2사단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국·시비 290억원을 투입해 9500㎡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보교육실을 갖춘 전망대와 지상 영상관, 전시실이 있는 평화생태 전시관,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다음달 11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성종사에서 '남북 평화의 종' 주조식을 갖는다. 대기봉 평화생태공원 부지에 설치될 '남북 평화의 종'은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과 탄피 등으로 만든다. 김 전 장관은 "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듣고, 개성까지 들릴 수 있도록 종탑의 높이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22일 대기봉에서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과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성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발 165m 대기봉 정상에 등탑을 세워 처음 불을 밝힌 것은 1954년이다. 2014년 10월 철거된 등탑은 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다.

대기봉 등탑의 불빛은 20~30km 떨어진 개성시내에서도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은 "괴뢰들의 반공화국 심리전"이라며 비난해 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사진 우측으로부터, 양승천 협회 사무국장, 주영수 선교위원장, 원종문 탈북동포지원연합 이사장, 한재숙 목사, 김영진 조직위원장, 유영록 김포시장, 석만청 대한불교 대각종 종정, 송기학 이사장, 라석환 장로, 신복식 회장 미암사 스님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세울 2m짜리 ‘평화의 종’ 주조식 비무장지대 녹슨 철조망과 탄피 녹여 제작 “평화의 상징으로”

경기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건립될 ‘세계평화의 종’ 주조식이 11일 오후 충북 진천군 성중사 주조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세계평화의 종은 한강하구와 북녘 일대를 조망하는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추진한다. 디자인은 영국의 세계적 산업디자이너이자 1982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아널드 슈워츠먼(81)경이 맡았다.

56년간 범종 제작의 외길을 걷고 있는 원광식(75) 주철장이 제작한다. 지난해 에밀레종을 복원해 실제와 99%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장인이다. 이 평화의종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의 녹슨 철조망과 탄피들을 녹여 만든다. 매년 정전기념일 등에 공식 타종할 예정이다.

평화의종은 높이 2m, 하단 둘레 163㎝ 규모로, 제작비 18억원이 투입된다. 서체는 훈민정음체를 집자해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살리고, 당좌에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형상을 조각한다. 좌우 비천상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기원을 담아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을 새긴다.

유영록 시장은 “수도권 최북단 한강하구 애기봉에 남북평화의 종 건립을 추진한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송기학 이사장님과 원광식 주철장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명소가 되도록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부 전선 최전방에 들어서서 평화의 종

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2017-12-22 22:12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96870#csidx89a7608138ec3a8b270597a9a0f6396>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애기봉은 서부전선 최전방으로, 북한땅이 흰히 내다보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1954년부터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혀 왔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자는 의미였지만, 그 동안 애기봉 성탄트리는 갈등의 상징이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트리를 설치하려는 보수교계와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진보교계의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북녘 땅에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자는 의미였지만, 개성에서도 보일 만큼 밝은 성탄트리는 의도와 다르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2015년부터는 양측이 합의해 평화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분쟁의 씨앗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설 남북 평화의 종으로 인해 더 이상 김포 애기봉에서 성탄트리를 둘러싼 갈등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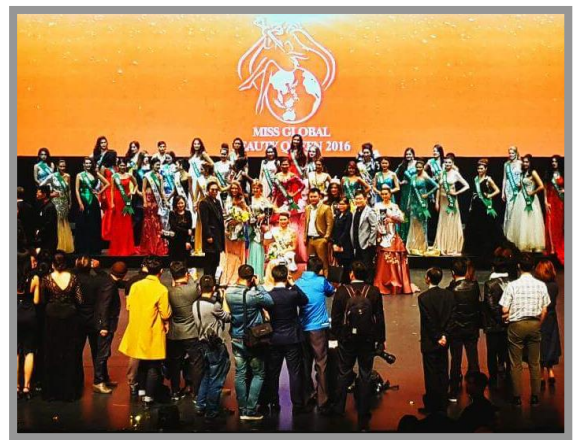
애기봉에 조성되는 평화생태공원에 자리하게 될 남북 평화의 종은 높이가 2미터에 달하고, 제작비만 1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김포시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달 김포시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69억 원을 확보하면서 오는 2019년 말까지 전망대와 안보 전시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북 평화의 종 건립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남북 평화의 종 건립 기금 3억 원을 쾌척하면서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아놀드 슈어츠만이 제작할 남북 평화의 종은 한국 전쟁 당시 사용했던 탄피와 지난 2014년 철거했던 애기봉 등탑 등을 함께 녹여 만들 계획이다.



## 특별기획사업

#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세계평화의 여왕 국제대회



### 1. 사업의 취지

지난 2015년, 민족분단 7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사업 일환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요 현장인 JSA(판문점)에서 진행되었던 “2015서울국제평화대회”에, 70주년 상징한 70개국 WORLD PEACE QUEEN들이 참가하여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 대사”로 위촉 받고, 세계각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 세계평화와 번영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6.25 전쟁의 남-북 양측 참전국과, 전후 대한민국 복구사업을 지원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일환으로 세계평화의 여왕 국제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이들을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세계평화의 여왕 국제대회

주 제: 세계평화를 만든다.

행사기간: 매년 10월 중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3. 사업 기획의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누가 어떠한 위치에서 평화를 말했느냐에 따라 그 파장과 메아리는 다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6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미완의 평화를 지켜 가려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평화는, 외침이 아니라 처절한 절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원인의 시작이 되었던 한국전쟁 남-북 양측 참가국들이, 세계평화라는 이름아래 하나될 수 있다면 이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 시키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4. 사업 기대효과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6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인 한민족의 아픔을 전화위복의 특별한 계기로 승화시켜 정전중인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세계평화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의 시작이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계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문화 열풍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이라는 콘텐츠를 접목시켜 한민족의 위상제고와 정체성 확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류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디딤돌을 만들게 될 것이다.

BEAUTIES

## 그녀들이 온다

ARE COMING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을 위해서 | 한국의 문화관광 산업을 전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 한국의 패션 뷰티 산업을 전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세40개국에서 참가한 Miss Queen들이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 받기 전에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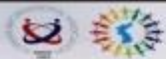
Miss Global Peace Queen 2016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40개국에서 참가한 Miss Queen들을 접경지역 김포 함상공원에서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과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한반도 평화회원 국제합창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주최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주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사랑법인 우리문화교류협회 | 후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통일교육진흥재단







## 특별기획사업

# 6.25전쟁 정전65주년 기념 국제평화연대 창립대회

### 1. 사업의 취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지국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 울림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우리들은 민족분단의 암울한 현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민족분단의 상처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승화, 발전시켜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더불어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회는 지금껏 활동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화교지도자들과 더불어 국제평화연대를 창립하여 동북아 평화와 번영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다양한 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감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6.25전쟁 정전65주년 기념 국제평화연대 창립대회

주제: 평화, 그 길을 만들다.

일시: 2018. 5~7월 중 4박5일

장소: 전쟁기념관, 애기봉 전망대, 판문점(JSA)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후원(예정): 민주평화통일통자문회의

中國和平統一促進會, 中華和平發展聯盟

### 3. 주요프로그램

1부: 동북아 평화발전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2부: DMZ(애기봉 전망대), JSA(판문점) 방문

3부: 국제평화연대 창립대회

- 한국평화의 종 타종식(영상)
- 창립선언 및 주요임원 선임
-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





國際平和連帶發足大會



국제 평화연대 창립식





# 韓半島和平獎章頒獎儀式

## Award ceremony of Peace Korea Medal



### 受獎人

台灣：吳淑貞・盧宜鈴・林秀帆

中國大陸：張金火

香港：林曼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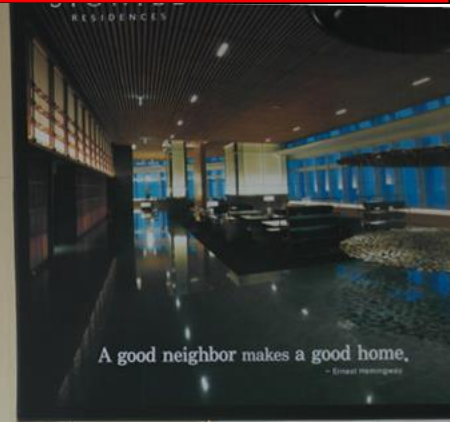
新加坡：林興發・林璿利

馬來西亞：林順平・林家儀

印度尼西亞：林文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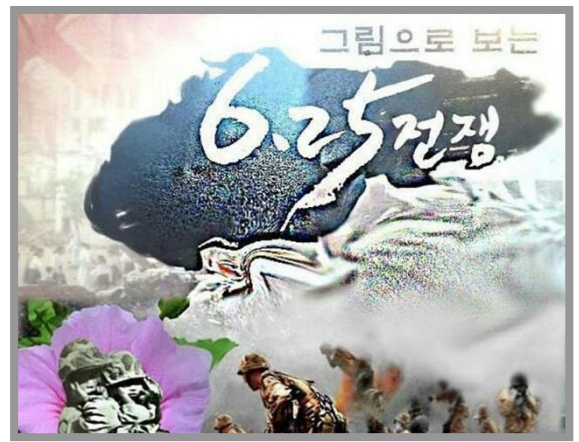
▣ 日時: 2017. 11. 11. ▣ 場所: 樂天世界大廈31樓sky31禮堂 (Lotte World Tower 31F sky31 auditorium)

▣ 主催: 大韓民國和平統一國民文化祭 組織委員會 ▣ 主管: 社團法人 友利民族交流協會



아시아권 주요지역 **中華和平發展聯盟** 지도자 일행이 방한하여 본 협회로부터 한반도평화메달을 수여 받고, 향후 아시아지역 평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사진 앞줄 중앙, 본 협회 상임고문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좌측 본 협회 송기학 이사장, 우측 **中華和平發展聯盟** 林竹松 主席)





**특별기획사업**  
**6.25전쟁 정전65주년 기념**  
**평화한국미술대전**

### 1. 사업의 취지

6.25전쟁 정전6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술계의 중진화가, 조각가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민족사적인 비극의 6.25전쟁을 예술로 승화시켜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가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평화한국 미술대전을 준비 하게 되었다.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계속해 왔던 남북한이 이젠 아물지 않는 상처의 아픔을 망각이 아닌 극복으로 해결해 가려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6.25전쟁의 역사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6.25전쟁 정전65주년 기념 **평화한국미술대전**

주제: 전쟁, 평화, 통일

일시: 서울 / 2018년 6월 25(월)~7월 01(일)

광주 / 2018년 7월 09(월)~15일(일)

부산 / 2018년 7월 21(토)~27일(금)

장소: 변동될 수 있음

서울 / 전쟁기념관

광주 / 광주시립미술관

부산 / 부산문화회관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공동주최(예정):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김포시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공동주관: 경기예술단체총연합회 /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위원회  
 주한미군전우회 / 한미동맹재단 /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후원: 교육부, 국방부, 문화부, 국제라이온스협회,









## 년중 계속사업 통일관련 계간지 통일로가는길 발행 보급



### 1. 사업의 취지

‘통일을 외치는 자는 많으나, 통일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해 가는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길게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고자 본 협회에서는 국내외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지 형식의 통일문제 전문 계간지로 <통일로가는길>을 발행하여 보급한다.

### 2. 사업의 개요

- 제호 통일로가는길
- 등록번호 종로 바00153
- 발행처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외교부 제358호)  
서울시 종로구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311호
- 자료사진 국민일보DB I 뉴시스







## 년중 계속사업

# 북한 어린이 돕기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 1. 사업의 취지

범국민적인 통일참여운동 일환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체험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재배운동을 시작하였다. 학교별로 인근 텃밭을 활용하여 학생들 자력으로 통일옥수수를 심고 가꾸어, 얻어지는 수익으로 북한 결식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에 첫 사업을 진행하며, 통일옥수수 종자를 공급한 옥수수재단의 김순권 박사와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전승환 교감 등 일차 참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이므로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안산에 위치한 진흥초등학교(교장 정경동)를 비롯한 10개 학교에서 첫 사업을 진행하여 수확하게 된 옥수수를 주변의 많은 학생들과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협회는 본 운동을 장기적인 국민통일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행사기간: 년중 계속사업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진행방법: 초,중,고등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종교기관, 군부대 및 일단 시민단체 등 활용 가능한 텃밭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일옥수수 재배

협 찬: 국제옥수수재단

후원(예정): 국제라이온스협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주한인총연합회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사진 좌)과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이사장(사진 우)이 통일옥수수심기 국민운동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수확한 옥수수를 선별하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텃밭동아리 학생들





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201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열린 도시농업한마당 축제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 국제옥수수재단과 함께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는 고양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인 ‘평화 고양교육 통일 관심 더하기’의 활동 중 하나로 통일 옥수수 재배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지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81개교가 참가했다.

체험 활동으로는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과 더불어,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통일체험과 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옥수수 가꾸기 국민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참가학교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텃밭에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찐 옥수수, 빵튀기, 조청 등의 2차 가공품을 제조하여 이를 행사장의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고양고등학교에서는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조청과 우리민족교류협회의 찐 옥수수와 빵튀기 등의 시식 행사는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우리민족교류협회 홍석준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통일 옥수수 재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통일 옥수수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 통일을 보다 피부에 닿게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오감만족의 통일체험과 평화통일 감수성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 년중 계속사업

# 함께 준비해 가는 평화통일 Peace Korea Campaign



### 1. 사업의 취지

‘Peace Korea Campaign’은 우리민족교류협회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일보 등 관련기관들과 더불어 6.25정전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참전국을 찾아가는 보은행사인 '세계평화 페스티벌 아리랑' 행사를 통하여 참전 21개국의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을 녹여 만든 보은메달을 전달하는 순회행사를 시발점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룩되는 날까지 장기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Peace Korea Campaign

주 제: 통일이 보인다.

후원(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재독한인총연합회

### 3. 주요프로그램

- Peace Korea 제휴카드 출시(외환은행)
- 한국평화의 종 미니어처 보급
- 통일을 준비해가는 기관 인증명판 보급운동



한국교회 평화의 성종은, 6.25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염원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6.25당시에 사용되던 탄피와 DMZ 철조망을 녹여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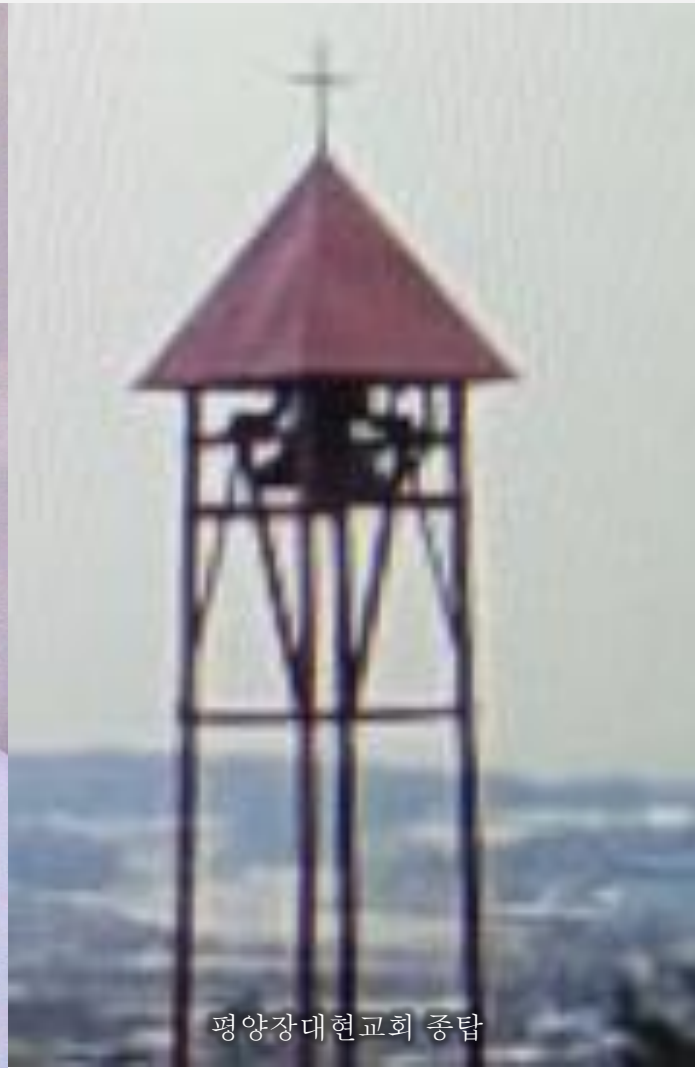
60여 년 동안 민족분단의 아픔을 안고 곱씹게 녹슨 DMZ 철조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PEACE KOREA의 메아리가 되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것이다.



# 한국교회 평화의 종 미니어처 보급운동



강대상용 평화의 성종



평양장대현교회 종탑

한국교회 강대상용 평화의 성종은 이 종이 울릴 때 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평양장대현교회 종탑을 본 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민족분단의 아픔을 안고 검붉게 녹슨 DMZ 철조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PEACE KOREA의 메아리가 되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것이다.

6.25와 그 이후 전후 복구 당시, 참전 군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다양한 구호물자였다. 그 구호 물자 대부분이 세계각국 교회 들을 중심으로 한 자선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마련되었음을 상기할 때 한국교회는 빛진 자의 위치에서 좀더 힘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폐철조망과 6.25당시에 사용되었던 탄피를 녹여 용산 전쟁기념관과 을곡동경비구역(판문점)에 건립한 평화의 종을 제조하면서 동일한 재질로 **한국교회 강대상용 평화의 성종**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통일의 그 날까지 모든 교회가 매 예배 시마다 평화의 성종을 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PEACE KOREA CAMPAIGN을 적극 전개해 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본 평화의 종은 **비매품으로 PEACE KOREA CAMPAIGN에 적극 참가하는 교회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 보급해 갈 예정이다.**

# 통일을 준비해가는 기관 인증명판 보급운동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길은 단숨에 걸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길게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매년 7월 27일 진행하게 될 평화의 종 타종식 행사를 연결고리로 먼저 종교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가고자 한다.

본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는 인증명판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메달을 전달함과 동시에, 본 협회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제반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여 70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 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범국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매년 정기사업  
**나라사랑 국민음악회**  
**범국민 평화의 종 타종식**



1. 사업의 취지

급변해가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들은 이제 지역과 계층간의 불화와 갈등의 에너지를 민족 대화합의 저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평화의 종 타종식과 더불어 DMZ 국민보은 메달 헌정식, 그리고 지역과 계층,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나라사랑 국민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한류문화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평화의 종 타종식 & 나라사랑 국민음악회  
 주 제: 사랑한다, 대한민국  
 일 시: 매년 7월 27일 전후(정전기념일 특집방송)  
 장 소: 애기봉 정상 또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 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3. 주요프로그램

제1부: 17:00 ~ 18:30  
**SHOUT OF WORLD PEOPLE**  
 - I LOVE KOREA, I LOVE KOREAN -  
 (영상 축하 메시지 / 국제적인 주요인사)  
 제2부: 18:30 ~ 20:00  
 행복한 나눔, 하나되는 코리아  
 - 나눔으로 커져가는 행복 -  
 (사랑의 메시지 / 주최측 대표)  
 제3부: 20:00 ~ 22:00  
 민족의 함성 평화아리랑  
 - 사랑한다 대한민국 -  
 (영상 격려 메시지 / 대통령)





#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2014 한국평화의 종 타종식

- 아, DMZ 녹슨 철조망! 평화의 종이 되어 울린다. -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2014 한국평화의 종 타종식

주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국민문화회



## "나의 사랑 나의 조국"



###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참전오사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2014. 10. 12 (일) 주최: 국민문화회, 주관: 국민문화제 조







“존경과 감사”

6.25전쟁에 참전하신  
귀하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평화한국이 건설되었기에  
귀하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DMZ 철조망과 6.25당시 탄피를 녹여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보은메달을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귀하게 정중히 드립니다.

[메달 뒷면 문구]



국민보은메달은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한 한국전에 참전한 21개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DMZ 중부전선(6사단) 녹슨 폐 철조망,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제공받은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현장에서 수집된 낡은 탄피 등을 녹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제작함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The medal above is a token designed by the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to repay the sacrifices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 With the support of POSCO, the medal is made with actual rusted pieces of the barbed-wired fence at the Korean DMZ embracing the spirit and faithfulness of every Korean citizen.

The Department of Defense 60<sup>th</sup>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ommemoration Committee has designated this medal as the official medal the 60<sup>th</sup>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commemoration ceremony to be held at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on July 27, 2013. In recognition of the medal's authenticity, we hereby present you this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Signed on the 15<sup>th</sup> Day of July in the City of Washington D.C. in the Two Hundred Twenty Seventh Year of the Republic.



David J. Clark,  
Colonel, Army General Staff  
Executive Director, DoD 60<sup>th</sup>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ommemoration Committee



한국전 정전60주년 미국정부 기념행사 공식지정메달 인증서(사진 좌),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DMZ 국민보은메달 기념우표 3종(사진 우)



매년 정기사업

우리 땅, 우리 문화  
독도 지키기 국제연대 운동



### 1. 사업의 취지

날로 노골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력 만으로 이를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순수 민간차원의 독도 지키기 국제연대를 결성하고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독도지킴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2. 사업의 개요

행사명칭: 독도아리랑  
주 제: Korea land, Korean culture!  
일 시: 매년 10월 25일  
공동주최: 독도지킴이국제연대, 국민일보  
경상북도/ 주관 방송국

### 3. 주요프로그램

- 옛날부터 우리 땅 독도 만화보급운동
- 국제K팝 경연대회 독도아리랑 개최
  - \* 대륙 별 예선대회 현지에서 개최
  - \* 국제경연대회 서울에서 개최
  - \* 최종예선 독도에서 개최
- 독도관련 국제학술대회 기획
- 독도소재 다큐 및 영화 기획제작







## 매년 정기사업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 1. 사업의 취지

본 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참전국에 대한 보은활동과 한반도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평화의 종’ 건립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2015년으로 한반도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범국민운동 일환으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제정하고, 매년 국내외 인사 중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 대상자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장 소: 국회의사당 귀빈홀

내역: 종교분야 / 정치행정분야 / 복지의료분야 / 언론분야 / 경제산업분야 / 교육분야 / 시민사회분야 / 문화체육분야 / 국제분야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후원(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건국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미주한인총연합회,

### 3. 한반도 평화공헌 대상 메달

한반도 평화공헌 대상 메달(사진 우)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그 분단의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때 사용되었던 낡은 탄피를 녹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기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되었다.

(메달 이미지는 변동 될 수 있음)



# 2017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선정 및 시상위원회



시상위원장  
정 의 화  
19대 국회의장  
조직위 명예위원장



시상위원장  
오 정 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조직위 대표회장



시상위원  
김 영 진  
전 농림부장관  
조직위원장



시상위원  
박 주 선  
국회부의장  
조직위원장



시상위원  
이 주 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직위원장



시상위원  
김 성 호  
전 법무부장관  
상임조직위원장



시상위원  
송 기 학  
통일로가는길 발행인  
조직위 집행위원장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통일을 위하여...**

지난 2015년으로 민족의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가슴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처럼 까다롭기 짝이 없는 경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전력 질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멀리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지난 2013년 6.25전쟁 정전60주년을 기념하여 순수민간차원의 통일운동 일환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전쟁 때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용산전쟁기념관에 ‘한국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매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에 진행하게 되는 타종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소통 통일문화축제로 승화시켜 가기 위하여 국내외 각 계각 층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범국민 통일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공감대를 국내외적으로 적극 확산해 가기 위하여, 6.25전쟁 참전국과 전후 복구 지원국을 중심으로 매년 ‘세계 평화의 여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파송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내외 각 분야에서 한반도 통일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특별히 선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같은 작은 노력이 나비의 법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도래할 수 있도록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 세계 평화의 여왕 / Miss Global Peace Queen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Commitment Ceremony of International Honorary Ambassador for Korean Peaceful Unification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 일시: 2017. 10. 10. PM 6:00 ◆ 장소: 사랑아트홀(서초구 사랑의교회 B4)  
 ◆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후원: 국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시상위원장 정 의 화  
진, 국회의장



시상위원장 오 정 연  
조직위 대표회장

**초청의 말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2017대한민국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과  
 Miss Global Peace Queen 2017 국제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뜻 깊은 행사를 격려하신다는 뜻에서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장 김영진, 박주선, 이주영  
 (사)우리민족교류협회의 총재 김성호, 대표회장 오정연, 이사장 송기학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수상자**



정치영성분야(Ⅰ) 평안영성연구소 이사장 권, 국무총리 정은찬 | 정치영성분야(Ⅱ)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종교분야 광정교회 위임목사 정성진 | 경제산업분야 북경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 국제분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필기 | 교육분야 광주대학교 총장 김희영 | 시민사회분야 (사)한정영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김성이 | 복지외교분야(Ⅰ)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의무부총장 윤도훈 | 복지외교분야(Ⅱ) 포산의료재단(삼명병원) 이사장 이상복 | 언론분야 통일신문 사장 장호영 | 문화영성분야 (주)드림에이스 회장 박재욱

**순서자**



실교 오정연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축도 염신영 목사 인천, 한기홍 대표회장 | 개최사 김영진 국회의원 (조직위원장) | 격려사 이낙연 국무총리 | 축사 김득홍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 축사 박주선 국민부장 (조직위원장) | 축사 유성환 국민교위원장 (광명조직위원장) | 축사 이주영 인천, 학암순수부위원장 (조직위원장) | 축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상임조직위원장) | 기도 이준장 목사 인천, 국경무용단 | 성경강목사 충청선 목사 조직위 시민부장 | 대대시위 시대전 목사 북한선교의 회장 | 종합진흥 송기학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2017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한반도 평화염원 국제합창제**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 위촉식**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Grand Prize Awards for Contribution to Korean Peaceful Unification  
 주후 2017. 10. 10 오후 6시 사랑아트홀 |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 후원 국외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대한민국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전 농림부장관 김영진,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사랑아트홀에서 2017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세계 50여 개 국에서 선발된 '2017세계평화의 여왕(Miss Global Peace Queen 2017)'들을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파송하는 행사와 한반도 평화염원 국제합창제를 진행했다.

(사)우리민족교류협회(대표회장 오정현 목사)가 주관하는 본 행사에는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준 전 국방부장관,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엄신형 전 한기총대표회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북방선교회 회장 서대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는 전 국방부장관 이준 장로의 간절한 기도와 오정현 목사의 설교, 엄신형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고, 2부 2017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은 9개 분야로 나누어 정치행정분야에 정운찬(전 국무총리), 박원순(서울시장)이 수상했고, 종교분야에서는 정성진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경제산업분야에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제분야에 주철기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교육분야에 김혁중 광주대총장, 시민사회분야에 김성이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복지의료분야에는 윤도흠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이상택 효산의료재단(샘병원) 설립자 겸 회장, 언론분야에 장운영 통일신문 사장, 문화봉사분야에 박재옥 (주)드림에이스 회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 매년 정기사업

#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제야의 종 타종식



### 1. 사업의 취지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 정상에 순수 민간차원의 범국민 통일운동 일환으로, DMZ 철조망과 6.25 당시에 사용했던 탄피, 그리고 지난 40여 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평화의 불빛을 비추어 왔던 성탄트리 점등 탑 등을 녹여 제작한 ‘남북평화의 종’ 타종식을 통해 국민대화합과 사회 통합을 구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제야 남북평화의 종 타종식

주 제: 아! 녹슬은 DMZ, 평화의 종이 되어 울리다.

일 시: 2017년 12월 31일 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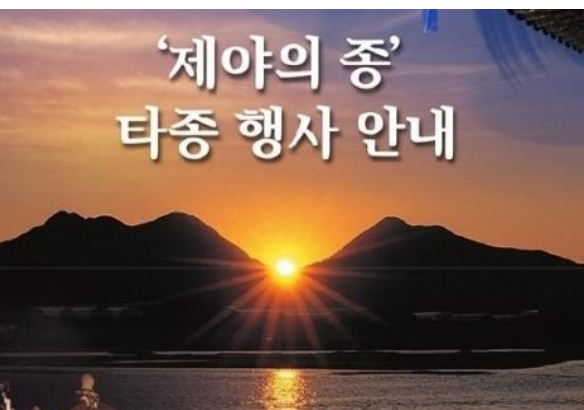
장 소: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 정상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김포시 | 해병2사단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방송주관: KBS한국방송(예정)

후 원: 민주평화통일국민회의 | 통일부





# 애기봉 정상에서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지는 DMZ 제야의 종소리...



## 남북평화의 종 재질의 구성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중부전선 DMZ 철조망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40년이 넘도록 애기봉 정상에서 평화의 불 빛을 밝혀온 성탄트리 점등 철탑



애기봉 종탑  
김포 세계 평화의 종에 담다.  
2017. 9. 7.  
(평화2사단, 남북수용민단)





## 인도주의 지원사업

북한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 나눔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



### 1. 사업의 취지

자라나는 청소년은 그 민족의 미래요 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녘 땅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녘 어린이들은 정치나 사상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될 우리민족의 미래요 희망이다. 이들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버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통일조국을 책임져야 할 더없이 무한한 한민족의 희망이기도 하기에 이들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정치와 사상을 떠나 이들을 도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외 동포 모두가 범 민족차원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북녘 땅 결식 아동을 위한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북한 결식아동을 위한,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

행사기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행사기간 미정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진 행: Peace Korea Campaign 본부

진행방법: 남한인구 5000만 명이 북한 결식 어린이들을

위해 “한 사람이 라면 한 개를 보내자”는 목표로

한국 7대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ARS 등을 통한 범국민 사랑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확보된 식품을 북측에 전달함

협 찬: (주)농심(예정), (주)삼양(예정),

후원(예정): 국제라이온수협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주한인총연합회,



### 3. 주요재원:



[중 량] 120g/개

[희망 소매가격] 650원/개

[제 품 특 징] 기존의 쇠고기 맛 면에 스프의 쇠고기 분말 함량을 5배 늘리고 우유를 첨가하여 부드러운 맛과 육수의 진한맛을 증가시킨 제품

[비 고] 북한동포 돕기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된 제품



## 중장기 계속사업

#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국제평화문화교류센터 건립



### 1. 사업의 취지

통일한국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통일교육과 실질적인 체험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진행되어야 하리라는 판단에서, 우리민족이 안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픔과 상처를 전화위복의 특별한 자산으로 삼아, 민족분단의 뼈아픈 현장을 국제적인 평화체험운동의 현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고자, 2018년으로 6.25 전쟁 정전65주년을 맞아 그 기념사업 일환으로 순수민간차원에서 애기봉 일대에 <국제평화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국내외적인 한반도 평화통일교육과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국제평화문화교류센터(통일훈련원)건립사업

장 소: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62

대 지: 134,381m<sub>2</sub> (40,0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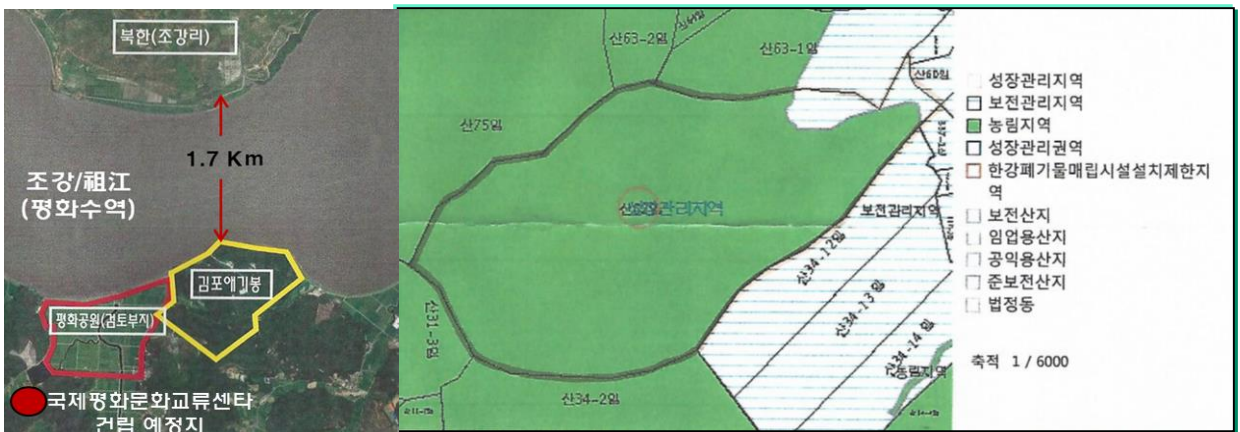
사업기간: 2018. 7월(정전65주년) ~ 2023. 7월(정전70주년)까지 1차 5개년 사업

주 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김포시 | 해병2사단

진 행: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칭: 727국제평화재단)

후원(예정): 민주평화통일국민회의 | 교육부 | 통일부 | 문화부 | 국방부

### 3. 예정부지개요: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 62 (134,381m<sub>2</sub> / 40,000평)









## 6. 사업의 핵심테마

왜 **애기봉** 인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그 분단의 현장 중 가장 근접거리

한반도 분단사를 테마로 많은 문화 콘텐츠가 창작되고 유통됨

대한민국 분단의 현장은 세계인이 공감한 평화상징의 테마임

분단의 근원인 한국전쟁은 남-북 양측 참전국이 44개국임

**국제  
평화문화  
교류센터**

공인된 콘텐츠로 세계시장 겨냥  
평화문화 '**애기봉**' → 선점

## DMZ 국제평화문화교류센터 & 한국교회 통일훈련원







추진위원 김포시장 예방



추진위원 현장답사